

수출 팽이버섯 위생관리 기술 개발

농진청, 팽이버섯 배지 살균조건 표준화, 고갈 대용량 세척장치 개발... 수출 회복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팽이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2020년 이후 수출 팽이버섯이 유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된 소독 기술 개발 요구에 따른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재배 과정에서 버섯 배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배지의 최적 살균 조건을 표준화하고 살균이 잘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기술을 개

발했다. 또한 버섯이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고갈(권지)*을 대용량 세척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했다.

연구진은 버섯 배지를 121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했을 때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버섯 배지 살균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배지 살균기 내에 열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살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표준화와 살균 효과 평가 기술은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 투입을 막아 에너지 사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말개는 하루 2만 장 이상 사용되는 고갈을 씻지 않고 재사용하면 유해 미생물 확산 위험이 커진다. 이번에 개발한 대용량 고갈 세척장치는 1회(30분)에 약 2,000~5,000장의 고갈을 씻을 수 있다. 공기 방울(에어버블)이 고갈 사이 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소독제가 여러 개 겹쳐진 고갈 사이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설계했다.

세척 수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100ppm 농도의 소독제를 사용했다. 20분 살균 후 70도 온도에서 고갈을 건

조하면 미생물은 완전히 사멸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고갈의 변형은 최소화하는 것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장치를 특허출원했다. 또한 12월 16일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과 정수경 과장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국내 팽이버섯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기술을 수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해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16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 시장 윤방섭)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주시복지재단에 500만원 기부

전건협 전북, 연말연시 나눔 실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16일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랑(이 시장 윤방섭)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문건설업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 북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매년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임근홍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물 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에 손길을 내미는 건설인이 될 수 있도록 협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국승철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출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준 임근홍 회장님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지역인재 신규직원 24명 채용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이정환)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금융전문가 양성을 위해 신규직원 24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된 신규직원은 16일 임용장 교부식을 시작으로 3주간의 연수를 거쳐 전북 관내 영업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정환 본부장은 신규직원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농협의 새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금융 전문가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금융하브의 중심이 될 전북의 미래를 밝게 빛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022년 19명, 2023년 22명, 2024년 상반기 24명, 2024년 하반기 24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며 매년 일여불은 취업시장 한파에 훈풍을 불어 넣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 해양수산 중간지원조직 성과보고회

전북도 해양수산업 발전 위한 협력·소통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2024 전북해양수산 중간지원조직 성과보고회'를 갖고 사업의 성과 공유와 더불어 전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들과의 협력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도내 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서재희 과장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전병권 소장,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고대곤 센터장 등 수산관련 관계자들과 전북해양수산산업투자지원사업 수혜기업 30개사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올해의 우수한 성과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장식했다.

전북해양수산산업투자지원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보고

발표에 이어 올해 전북도 해양수산업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우수기업 '창업단계 어성호', '성장단계 (유)영인 바이오'와 '고도화단계 (주)삼부자컴퍼니, 전북씨그린트랜저'가 각각 우수사례 발표를 하였고, 전북도 해양수산업의 우수성을 공유하며 기업 간 협업 강화를 이끌어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올해 3년차가 된 전북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기업들에게 3가지 분야의 단계별 지원(창업단계, 성장단계, 고도화단계)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나빠도 불구하고 전북도 해양수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서재희 과장은 "앞으로도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를 비롯해 전북을



넘어 전국 전국을 넘어 세계로 가는 목표를 정하여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단순한 숫자나 결과가 아닌 여러분들 각자의 꿈과 목표가 실현되는 길이 열리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웃으며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에도 올해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 노력하겠으며, 단순히 지원을 넘어 해양수산 기업들에게 전략적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국 최초 청년자율방재단 창단... 전기안전공사 산업부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2024년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재난관리 우수기관 유공'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년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전국의 노후 지하차도 170곳과 배수펌프장 2,460곳의 사전 점검

을 진행했으며, 민방위 시설 약 6,200곳의 안전점검도 진행했다.

여기에 전국 최초 민·관·공 협업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전국의 노후 지하차도 170곳과 배수펌프장 2,460곳의 사전 점검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년 자율방재단은 전북 완주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지원과 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남화영 사장은 "청년자율방재단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며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이 모여 올해의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계획과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보장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환경 마련에 노력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약 1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새만금산단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분야를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지원제도 추가 발굴과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유치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본격화 등 새



만금 지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업무 중첩 방지 등을 위해 2021년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반장으로 하여 유관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를 팀원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투자유치가 산단에 이어 도시개발과 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유관 지자체도 반기마다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추후 상황에 맞춰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